



The Sower(1888), Vincent van Gogh, Kröller-Müller Museum, Otterlo.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마태 13.8)

■ 미사 전례

- 제 1독서: 이사 55,10-11
- 화 답 송: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 제 2독서: 로마 8,18-23
- 복음 환호송: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 복 음: 마태 13,1-23

■ 미사 시간

-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전 8:00
오전 10:00(영어)
오후 12:00(교중미사)
- 평일미사: 화 · 수 · 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전 10:00

화 답 송:

-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 하느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어, 넘치는 물로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하느님의 강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은 곡식을 영글게 하시나이다. ◎
- 정녕 당신이 장만해 주시나이다. 고랑에 물 대시고 이랑을 고르시며,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
- 한 해를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니, 당신이 가시는 길마다 기름진 땅이 되나이다. 사막의 풀밭에도 윤기가 흐르고, 언덕들도 기쁨의 떠를 두르나이다. ◎
- 목장들은 양 떼로 뒤덮이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환성을 울리며 노래하나이다. ◎

함께 지키는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

A. 일반 사항

1. 다음의 경우에는 미사 참례를 대송으로 대신합니다
 - 노약자 및 임산부 - 65세 이상 어르신중 건강이 염려되는 분
 - 감기, 기침, 발열 증상이 있는 분 - 기저질환을 치료중이거나 허약하신 분
 - 최근 2주내에 해외나 다른 주(state)를 다녀오신 분
2. 모든 미사참례는 성당 정면 주출입문만 사용합니다.
3. 서로 대화할 때에도 사회적 거리(6 feet)를 반드시 유지합니다.
4. 성당 곳곳의 안내문을 잘 따릅니다.
5. 봉사자들의 안내에 잘 협조합니다. (발열 체크, 명부 작성, 손세척 등)
6. 일체의 음료나 음식물을 나누지 않습니다. (필요시 개인용 식수 준비)

B. 미사 참례를 위한 준비

1. 모든 미사의 참석 최대 가능 숫자는 50명 수준입니다.
2. 미사 시간에 늦지 않게(30분전) 오셔서 미사참례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합니다.
3. 성당 출입구에서 발열체크를 하여 체온이 화씨 99.6(섭씨 37.5)이상이면 미사참례가 불가합니다.
4. 2층 성가대 자리와 유아실은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워둡니다.
5. 모든 신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합니다.
6. 사회적 거리(6 feet, 2 mt) 유지방침에 따라 표시된 좌석에 앉습니다.
7. 성가책, 기도서, 성경책은 비치하지 않습니다.

<미사 참례를 위한 준수사항>

1. 미사 중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2. 미사 중 모든 응답은 해설자만 대표로 합니다. 나머지는 마음속으로 응답합니다.
예) (사제)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응답) 해설자 : 아멘
3. 미사 때 성가는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주일은 입당, 봉헌, 성체, 퇴장 때 반주만 있겠습니다.
4. 성찬의 전례 때 장례틀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어선 자세로 성찬의 전례에 참여합니다.
5. 평화의 인사는 접촉 없이 목례로 대신 합니다.
6. 영성체 때 모든 신자들은 사제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초대에 다 함께 '아멘'하고 한번만 응답합니다. 그리고 성체를 모시러 나왔을 때에는 따로 응답하지 않고 성체를 모십니다.
7. 성체를 모실 때에는 사회적 거리를 지킵니다.
8. 성체분배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 후에는 신자 분들이 제대를 바라보았을 때 독서대가 있는 분단부터 한 명씩 나와서 성체를 모십니다. 한 분단이 성체를 다 모시고 난 뒤에 해설대가 있는 분단의 신자 분들이 안내에 따라 한 명씩 성체를 모십니다.
9. 주일에는 모든 신자들이 성체를 모시고 난 뒤에 2층 성가대 반주자의 성체분배가 이루어집니다.
10. 신자 분들은 파견 때에 사제가 퇴장을 하여도 자리에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11. 봉헌금을 내지 못하신 분들은 미사 후에 봉헌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Online 그룹 성경반 모집

- Zoom을 통해 Online으로 성경공부를 시작합니다.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이사야
- 시작: 8월부터(그룹원들의 시간에 맞추어 조절함) • 신청: 7월 31일까지
- 문의: 박애실(헬레나) ☎213-500-9393

우리들의 정성 (2020. 7. 5 현재)

교 무 금	6,420.00	교무금(30명) 권영주, 김봉소, 김신아, 김영길, 김창기, 김탁제, 박용세, 박효신, 백경호, 송희원, 신동욱, 심재경, 엄영근, 예영해, 윤지철, 이강욱, 이규인, 이기광, 이봉화, 이용배, 이용일, 이윤희, 이점례, 이진석, 주태근, 최 호, 태운주, 한상윤, 한완영, 한태호, 감사헌금(7명) 신동욱, 엄영근, 우인주, 윤지철, 이강호, 익 명, 이윤희, 기부금(1명) 익 명, 성소후원금(18명)
주일 헌금	1,065.00	
감사 헌금	570.00	
기 부 금	50.00	
성소 후원금	39.00	



성경의 인물 119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

어느 날 예수님의 일행 앞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이파 사람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다. 예수님의 발치에 그녀를 패대기 치고는 큰소리로 떠들었다.

“선생님, 모세의 법에 따르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고 똑똑히 대답하셨다.

그러자 얼마 후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났다. 붙잡혀온 여인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옷이 벗겨진 채 공포에 떨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 연민으로 가득 찬 어조로 말씀하셨다.

“어서 돌아가라. 이제는 죄짓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나는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다. 죄 속에 빠져 있지만 불편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네 마음을,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유혹에 빠지고 마는 네 약한 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다시 용기를 갖고 시작해 보렴’ 하는 것 같아 보였다.

여인을 측은하게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은 연민으로 가득 차 촉촉이 젖어 있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인간을 먼저 생각하시고 인간에게 우선적인 가치를 두셨다.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했던 유일한 동기는 다름 아닌 연민이었다. 그분은 사람들을 고통과 그 고통에 대한 체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라고 믿었다.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유는 바로 이러한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는 말씀을 덧붙이셨다.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 일은 무엇보다도 주변의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일깨우는 것이었다. 이처럼 예수님은 무엇보다 믿음의 인물이었다. 예수님은 믿음만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하셨다.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믿음의 힘이었던 것이다.(마르 10,27; 9,23 마태 17,20)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분이셨다. 예수님은 슬플 때 눈물을 흘리시고 때로는 격정에 못 이겨 화를 버럭 내시기도 했다. 가끔은 사람들과 어울려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이시고 함께 어울리며 재미있게 지내시기도 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매력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게 했던 원동력이 되었다.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이나 병자나 무능력자나 모든 사람들과 어울리셨다. 예수님은 이들을 친구로, 동등한 사람으로 받아들여 그들의 수치감과 비굴함과 죄의식을 씻어 주셨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존심과 해방감을 주었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기쁜 소식이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셨다. 그분은 신성을 지니신 분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이 희로애락을 체험하신 한 인간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더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그리고 너무나 인간적인 분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서의 인물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분이 아닐까. <평화신문, 제691호(2002년 9월 8일), 허영엽 신부(서울대교구 성서못자리 전담)>



고려 여행사 3388 W. 8 th St. LA CA 90005 한 레지나 / 레오 Tel 213-385-6611	전 명세(패트릭), CPA RE BROKER INDIVIDUAL&CORP TAX, ACCOUNTING SERVICE, ESTATE PANNING, ADVANCED FINANCIAL & RETIREMENT PLANNING 전 패트릭&안나 (213)380.6437 patrickchyun@hotmail.com	올림픽 타운 꽃집 Olympic Town Flowers 1101 S. Vermont Ave #107 (버몬트 + 11가 코너) (323)RED-ROSE (213)480-3102 김 미카엘라(예옥)	백양·쌍방울 (LA 속옷 전문 매장) 한국산유명속옷브라자거들 양말·스타킹·잠옷·백일·돌복 LA 웨스턴 백화점(9가+웨스턴) 서 엘리사벳 213-487-7676
Fire Way Fire Protection 소화기 점검해드립니다. 김항철(요셉) 213-352-3554 김 호노리나 213-200-3049 EE#25138	건강보험(커버드CA), 메디칼-메디케어, 생명보험(Life), 연금(IRA), 무료상담 213-249-2121 예영해(프란치스코)	글렌데일 브랜드 꽃집 1134 E. Chevy Chase Dr Glendale, CA 91205 ☎ 818-244-1359 Web: www.brandflorist.com 서 베로니카	결혼정보회사 듀오 USA 한국 며느리, 한국 사위, 믿을수 있는 듀오 USA 에서 인연을 만드세요 세실리아 : 213-383-2525(LA) 201-242-0505(NY)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건강/사업체/자동차 박 헬레나(에실) ☎213-500-9393	광고주를 기다립니다.	Meeyoung J. Kim D.D.S Howard J. Yang D.D.S. <김 율리아, 양 파비아노> 437 W. Colorado St. Glendale ☎ 818-244-0299 일반치과, 치아미식, 보철치과	보스톤 치과 구강호 토마스AQ 213-380-2727 3663 W. 6th St. #203A. LA 한인타운 6가 와 아드모어 LA Medical Center
윤주익(클라라) Executive Manager Law Offices of Eugene Yun 부동산, 회사설립, 유언/상속, 교통사고, 형사법 213-388-3535/818-433-2891(C) www.eugeneyunlaw.com	대한 장의사 이 미카엘 213-700-1788	한 태 호 변호사 법률 그룹 KENNETH T. Haan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민사소송/사고, 상해/노동법/이민법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Tel (213)639-2900 www.haanlaw.com 한 마리노, 클라라	36년 전통의 한국장의사 HAN KOOK MORTUARY 323-734-5656(L.A.) 562-868-0788(세리토스/놀릭) 장례에 관한 모든 절차를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불란서 안경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시니어 HMO 지정점 3104 W. Olympic Bl. LA. ☎ 213-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미주 자동차 정비 MIJU AUTO REPAIR & BODY 415 W. Broadway, Glendale (818)247-4400 이 크리스티나 & Karl	안진환(Tony), CPA 안토니오 & 스텔라 2140 W. Olympic Bl. #508 (213)344-9137/(213)380-5070	서 승혜 나탈리아 공인 회계사 3450 Wilshire Blvd #302 Los Angeles, CA 90010 ☎ 213-380-8389/213-272-4988 e-mail: jeune1004@gmail.com
Hankook Plumbing 가정, 식당, 상가 모든 플러밍 설비 및 수리 아무리 작은 일도 성심껏 봉사 "막힌 곳은 뚫어드리고 뚫린 곳은 막어드리고" 홍 벤자민 818-321-4776	이동현 토마스 아퀴나스 내과/노인 의학과 213-674-7758 2727 W. Olympic Blvd. Suite 309 LA, CA 90006 한남체인 건너편 이전개원	광고주를 기다립니다.	구 본욱 한의원 사암침(빠른 효과) (8가와 Hoover 코너) 213-427-1299
이호제 MD Ho je Lee 가정 주치의 Glendale (818)246-3306 K-Town (323)452-0656	뉴스타 부동산 김영재(요한) 213-840-1237 Office: 213-385-4989 newjohnkim@newstarrealty.com BRE#:02033433	WESTERN EXPRESS 자동차 종합 정비 OIL CHANGE·TUNE-UP·BRAKE ·CHECK ENGINE·SMOG CHECK 258 S. Western Ave. LA 90004 (213)365-0333 강안토니오	금강안경검안과 GOLD OPTOMETRY L.A. : (213)384-1001 (로데오 플라자 몰내) G.G. : (714)530-1001 (H 마트 몰내) 요셉 & 루시어 김 . M. E. 21개
수녀님 참기름 멕시코 농민 일자리 제공을 위한 건강하고 맛있는 참기름 주문전화: 213-220-1711 kakaotalk ID: puracollective www.puracollective.com	태양 여행사 2707 W. Olympic Blvd. #101 LA, CA 90006 서울 사무소 02-775-9702 김경희(골롬바) 213-252-9700	두드림 종합 보험(주) 대표: 제임스 양(아고보) 생명/은퇴연금/로템케어/사업체/주택 자동차/건강/메디케어플랜 ☎: 213-388-8055 LA 월서 + 세라노	광고주를 기다립니다.